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 성의식

이 인 숙^{1*} · 김 효 신² · 조 주 연³

¹극동정보대학 간호과

²호서대학교 간호학과

³수원과학대학 간호과

Viewing internet obscenity and sexuality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n Sook Lee^{1*}, Hyo Shin Kim², Ju Yeon Cho³

¹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²Department of Nursing, Hoseo University

³Department of Nursing, Suwon Science College

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the sexuality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viewing internet obscenity .

Method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total 594 students of 6th grade at 3 primary schools in Gyunggi-do.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from December, 11 to December, 18, 2006.

Results: 1. 19.2% of respondents viewed internet obscenity. As for the first time they viewed it, 41.2% of respondents was when they were 6th grade students. Fifty percents of respondents viewed internet obscenity accidentally while surfing through the internet. As for the places where they viewed internet obscenity, 59.6% of respondents was at their house. Fifty percents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felt no feeling after they viewed internet obscenity.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viewing internet obscenity according to gender. 2. The mean score of sexuality awareness was 46.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xuality awareness according to gender, school record, and understanding about prohibition of the teenagers' viewing internet obscenity.

Conclusion: We should provide lower grade students health education on internet obscenity preventive program at the home and school.

Key words: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ternet, sexuality

(2007년 7월 20일 접수, 10월 17일 채택)

* Corresponding author : Inn Sook Lee, Department of Nursing, Keukdong College, 369-703,
154-1, Danpyung-Ri Gamgok-Myeun Eumsung-Gun Chungbuk Korea
Tel : 82-43-879-3428 Fax : 82-43-879-3426 E-mail : ilee001@kdc.ac.kr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keukdong college

I. 서 론

인터넷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낙관적 전망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사용의 부정적 측면, 즉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여성민우회, 2000). 초등학생이 하루에 받는 이메일의 절반은 스팸 메일이고 그 중 3분의 1은 음란물이며 십대 10명 중 8명 이상이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음란물로부터 거의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임덕십, 2004).

인터넷 음란물이란 사진, 소설, 동영상 형태의 음란물을 인터넷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로 변환시키거나 컴퓨터의 특성을 적용해 제작된 것을 의미한다(임종인, 2004).

우리나라의 인터넷 음란 사이트는 6만 4천 개로 세계 2위이며 인구비례로 볼 때 1위 수준이다(국민일보, 2003). 초·중학교 네티즌 15,1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음란물을 접촉하는 매체로써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디오였다(중앙일보, 2001). 이는 최영선(1998)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성인용 비디오, 성인영화, 인터넷, 성인 잡지의 순으로 구분되던 음란물 전파매체가 점점 컴퓨터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음란물 사이트의 내용은 신체의 치부가 노출된 단순한 누드 영상에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성인들에게 '사이버 섹스'중독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왜곡된 성의식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임경순, 2004).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기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발달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성의식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성의식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성애에 대한 접근욕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며 성에 대한 감정, 생각, 지식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서(이춘재, 1996)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기는 성을 표면적, 현실적으로 의식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며 동성과 더불어 이성과의 관계도 새로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특히 이 시기에 획득하게 된 성에 대한 긍정적, 부정

적 경험들은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현장이나 가정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함양하게 하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초등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인터넷 음란물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이진영, 2004).

아동들의 성의식의 변화는 현대사회의 성문화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사춘기의 시작이 과거에 비해 10~11세로 빨라졌으며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김혜란, 2002; 성경자, 2000; 조금량, 2002). 과거의 아동들은 이성교제가 자유롭지 못했고 하이틴 로맨스나 소설 속에 표현된 사랑을 읽으며 성관계를 막연히 생각했지만 지금은 음란비디오나 컴퓨터 동영상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접하게 되어 자신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갖게 되고 대부분이 이성의 친구를 갖고 있는 현실이라 실제로 성충동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많아졌다(송정아와 윤명선, 1997). 컴퓨터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컴퓨터 음란물 정기 접촉자가 단순 접촉자보다 자위행위, 음란물 내용 모방 충동 정도, 이성애에 대한 신체 접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란, 2002).

이러한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건전한 성의식을 함양하도록 성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확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음란물이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중·고등학생들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도되었을 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이 초등학생의 성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초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와 성의식을 살펴보고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Y시와 I시에 소재하는 3개 초등학교 6학년 남녀 학생 59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인터넷 음란물 접촉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관한 도구는 선행연구들(김도신 2003; 오건호, 2003; 임경순, 2002; 임덕심, 2004)에서 사용된 여러 도구를 참고하여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 유무, 종류,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촉한 시기, 접촉하게 된 동기, 접촉 빈도, 접촉 시간대, 접촉 시 소요시간, 접촉 장소, 접촉 시 동반자, 접촉 후 느낌, 접촉 이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금지에 대한 인지 여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인지 여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인지 갯수 등의 1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성의식

성의식 도구는 고민정(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33문항의 설문지를 참고하였으며 연구자가 근무하는 대학의 모성간호학과 아동간호학 전공 교수에게 초등학생 수준에 적합한 문항 구성이 되도록 2006년 11월 6일에서 8일까지 자문을 구하였다.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연구 대상 학교가 아닌 I 시의 일개 초등학교에서 2006년 11월 13일에서 15일까지 54명의 남녀 학생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 생식기의 소중함, 혼전성관계, 성행동의 조절, 자위행위, 성적 이상행동, 매스컴을 통한 성, 성적욕구의 해결방법, 성폭력의 개념 및 대응 등 12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도구는 Likert 식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의식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0.76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6년 12월 18일까지였고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해당 초등학교 보건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

명하였으며 보건교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배포한 650부의 설문지 중 635부를 수거하였으며 분석에 불충분한 41부를 제외한 후 594(93.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 실태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의 차이는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인터넷 음란물 접촉 유무에 따른 성의식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Scheff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성의식 도구에 대한 신뢰도 검정은 Cronbach α 값을 산출하였다.

III.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남학생이 296명(49.8%), 여학생이 298명(50.2%) 이었다. 부모님의 생존여부는 두 분 모두 계신 경우가 96.0%, 편친이거나 모두 안 계신 경우가 4.0%였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21.7%, 중위권 64.3%, 하위권이 14.0%였으며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59.6%였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4)		
특성	구분	N(%)
성별	남	296(49.8)
	녀	298(50.2)
부모님	모두 계심	570(96.0)
	편친, 모두 안계심	24(4.0)
학업성적	상위	129(21.7)
	중위	382(64.3)
	하위	83(14.0)
부모님 맞벌이	예	354(59.6)
	아니오	240(40.4)

2.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

본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은 19.2%였으며 이들 중 음란사진을 본 경험은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음란동영상 28.1%, 음란채팅 6.1%, 음란소설 4.4%, 음란게임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을 최초로 접촉한 시기는 6학년 때가 41.2%로 가장 많았고 5학년 36.0%, 4학년 14.0%, 1-3학년 6.2%, 초등학교 입학 전이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촉하게 된 계기로는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 선배의 권유가 21.0%, 기타 12.3%, 스팸 메일 9.6%, 성적호기심 7.0%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빈도는 '몇 달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일 주일에 1-5회' 18.5%, '한 달에 한번' 10.5%, '거의 매일'이 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소요시간에 대해서는 '보자마자 끈다'는 응답이 55.3%로 가장 많았고 '10분 이내' 21.1%, '10분~1시간 이내' 9.6%, '30분~1시간 이내' 2.6%, '1시간 이상'이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의 접촉시

간은 기타가 57.9%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27.2%, '아무 때나' 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장소는 자신의 집이 5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구집 14.9%, PC방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에 대해서는 우연히 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혼자 봤다 28.9%, 친구와 함께 봤다 2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후의 느낌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죄의식, 혐오감, 불안감 37.7%, 자꾸 생각나 보고 싶음 8.8%, 성적 쾌락감 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성적 호기심에서 18.4%, 재미, 스트레스 해소 7.1%, 친구들이 보니까 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금지에 대해서 대상자의 93.0%가 알고 있었으며 음란물 사이트 인지 여부에 있어 30.7%가 음란물 사이트를 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대상자 중 77.1%가 1~2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

(n=594)

특성	구분	N(%)
음란물 접촉경험	유	114(19.2)
	무	480(80.8)
음란물 접촉유형	음란사진	67(58.8)
	음란동영상	32(28.1)
	음란소설	5(4.4)
	음란게임	3(2.6)
	음란채팅	7(6.1)
음란물 최초 접촉시기	초등입학 전	3(2.6)
	1-3학년	7(6.2)
	4학년	16(14.0)
	5학년	41(36.0)
	6학년	47(41.2)

특성	구분	N(%)
음란물 최초 접촉 계기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57(50.0)
	친구, 선배의 권유	24(21.1)
	스팸 메일	11(9.6)
	성적호기심	8(7.0)
	기타	14(12.3)
음란물 접촉빈도	거의 매일	2(1.8)
	일주일에 한번	11(9.7)
	일주일 2-3번	8(7.0)
	일주일 4-5번	2(1.8)
	한달에 한번	12(10.5)
	몇 달에 한번	79(69.2)
음란물 접촉시간대	방과 후 저녁식사전	2(1.8)
	저녁식사후-잠자기 전	2(1.8)
	부모님이 안계실 때	31(27.1)
	아무 때나	13(11.4)
	기타	66(57.9)
음란물 접촉 시 소요시간	보자마자 끈다	63(55.3)
	10분 이내	24(21.1)
	10-30분 이내	11(9.6)
	30분-1시간	3(2.6)
	1시간 이상	1(0.9)
	잘 모르겠다	12(10.5)
음란물 접촉장소	자기집	68(59.6)
	PC방	6(5.3)
	친구집	17(14.9)
	기타	23(20.2)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혼자	33(28.9)
	친구	24(21.1)
	우연히 봐서 모름	57(50.0)
음란물 접촉 후 느낌	별다른 느낌 없음	57(50.0)
	성적 쾌락감	4(3.5)
	죄의식, 혐오감, 불안감	43(37.7)
	자꾸 생각나 보고 싶음	10(8.8)
음란물 접촉 이유	성적 호기심에서	21(18.4)
	재미, 스트레스 해소	8(7.1)
	친구들이 보니까	7(6.1)
	우연히 보게 되니까	40(35.1)
	기타	38(33.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금지에 대한 인식	안다	106(93.0)
	모른다	8(7.0)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인지여부	안다	35(30.7)
	모른다	79(69.3)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인지 갯수	1-2개	27(77.1)
	3-4개	5(14.3)
	5개 이상	3(8.6)

3. 대상자의 성의식 정도

대상자들의 성의식 점수는 60점 만점에 최저 14점에서 최고 60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46.4점(SD 6.73)을 나타냈다.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촉 유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성별($\chi^2=19.50, p=.000$)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은 26.4%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여학생은 12.1%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부모님 생존

여부, 학업성적, 부모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3).

5.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93, p=.004$), 학업성적($t=4.46, p=.01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의 성의식 점수가 47.2점으로 남학생의 45.6점에 비해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상위권인 군의 성의식 점수가 47.9점으로 중위권 46.0점, 하위권 45.6점에 비해 높았다. 이외에 부모님 생존여부, 부모님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성의식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 (n=594)

특성	구분	접촉경험		χ^2	p
		유	무		
성별	남	78(26.4)	218(73.6)	19.50	.000***
	녀	36(12.1)	262(87.9)		
부모님	모두 계심	109(19.1)	461(80.9)	0.04	.835
	편친, 모두 안계심	5(20.8)	19(79.2)		
학업성적	상위	31(24.0)	98(76.0)	2.62	.270
	중위	67(17.5)	315(82.5)		
	하위	16(19.3)	67(80.7)		
부모님 맞벌이	예	63(17.8)	291(82.2)	1.10	.294
	아니오	51(21.2)	189(78.8)		

***p<.001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의식 (n=594)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성별	남	296(49.8)	45.6±7.27	-2.932	.004**
	녀	298(50.2)	47.2±6.06		
부모님	모두 계심	570(96.0)	46.4±6.74	0.941	.347
	편친, 모두 안계심	24(4.0)	45.1±6.64		
학업성적	상위	129(21.7)	47.9±6.22a	4.459	.012*
	중위	382(64.3)	46.0±6.56a		
	하위	83(14.0)	45.6±7.88a		
부모님 맞벌이	예	354(59.6)	46.2±6.50	-1.054	.292
	아니오	240(40.4)	46.8±7.06		

*p<0.05, **p<0.01, a : Scheffe test

6.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특성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

인터넷 음란물 접촉 특성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금지에 대한 인식여

부에 있어서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금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학생들의 성의식은 47.1점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40.6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75, p=.007$)〈표 5〉.

〈표 5〉 대상자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특성에 따른 성의식 (n=594)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음란물 접촉경험	유	114(19.2)	46.5±6.48	0.24	.813
	무	480(80.8)	46.4±6.80		
음란물 접촉유형	야한사진	67(58.8)	46.9±5.59	0.53	.716
	음란동영상	32(28.1)	46.6±7.06		
	음란소설	5(4.4)	43.0±10.3		
	음란게임	3(2.6)	44.0±7.00		
	음란채팅	7(6.1)	46.4±9.31		
음란물 최초 접촉시기	3학년 이전	10(8.8)	42.5±6.92	1.45	.231
	4학년	16(14.0)	46.6±7.38		
	5학년	41(36.0)	47.1±5.17		
	6학년	47(41.2)	46.9±6.98		
음란물 접촉계기	인터넷서핑 중 우연히	57(50.0)	47.6±5.15	1.11	.358
	친구, 선배의 권유	24(21.1)	45.2±7.33		
	스팸 메일	11(9.6)	45.8±6.10		
	성적호기심	8(7.0)	43.6±9.58		
	기타	14(12.3)	46.6±7.94		
음란물 접촉빈도	일주일에 1-7회	23(20.3)	45.2±6.84	0.74	.479
	한 달에 한번	12(10.5)	47.8±6.97		
	몇 달에 한번	79(69.2)	46.7±6.32		
음란물 접촉시간대	방과 후	4(3.6)	42.3±6.08	1.19	.316
	부모님이 안계실 때	31(27.1)	48.0±7.52		
	아무 때나	13(11.4)	46.5±4.50		
	기타	66(57.9)	46.1±6.25		
음란물 접촉시 소요시간	보자마자 끈다	63(55.3)	47.1±6.14	0.73	.535
	10분 이내	24(21.1)	46.3±6.78		
	10분 이상	15(13.1)	46.6±6.67		
	잘 모르겠다	12(10.5)	44.1±7.59		
음란물 접촉장소	자기집	68(59.6)	47.0±6.05	0.76	.519
	PC방	6(5.3)	43.3±8.26		
	친구집	17(14.9)	45.5±7.90		
	기타	23(20.2)	46.6±6.21		

특성	구분	N(%)	Mean±SD	t or F	p
음란물 접촉 시 동반자	혼자	33(28.9)	46.6±5.98	2.28	.107
	친구	24(21.1)	44.2±7.61		
	우연히 봐서 모름	57(50.0)	47.5±6.09		
음란물 접촉 후 느낌	별다른 느낌 없음	57(50.0)	46.8±6.54	0.13	.941
	성적 쾌락감	4(3.5)	46.5±4.43		
	죄의식, 혐오감, 불안감	43(37.7)	46.4±6.32		
	자꾸 생각나 보고싶음	10(8.8)	45.4±8.11		
음란물 접촉이유	성적 호기심에서	21(18.4)	47.0±6.94	0.92	.453
	재미, 스트레스해소	8(7.1)	45.8±7.00		
	친구들이 보니까	7(6.1)	48.4±9.68		
	우연히 보게 되니까	40(35.1)	47.5±5.49		
	기타	38(33.3)	45.1±6.46		
음란물 접촉금지에 대한 인식여부	안다	106(93.0)	47.1±6.18	2.75	.007*
	모른다	8(7.0)	40.6±7.82		
음란물 사이트 인지여부	안다	35(30.7)	46.9±6.69	0.46	.650
	모른다	79(69.3)	46.3±6.41		
음란물 사이트 인지 갯수	1-2개	27(77.1)	46.7±7.27	0.07	.931
	3-4개	5(14.3)	47.8±5.40		
	5개 이상	3(8.6)	47.7±3.79		

*p<0.05

IV. 고 찰

우리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속에서 초등학생들은 인터넷 음란물, 텔레비전, 비디오, 잡지 등과 같은 자극적인 성 관련 정보들로 인해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흥미위주의 왜곡된 성적 정보들 속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조주현, 2003). 특히 인터넷은 다른 어떤 매체보다 여과 없이 생생하게 음란 정보를 노출시키고 있어 가상공간에서 묘사되는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성적 표현들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성적 충동과 함께 가치관의 혼란 및 성의식 형성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은 19.2%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도신, 2004; 오건호, 2003; 임경순, 2002; 이진영, 2004)에서 30~68.3%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음란물 접

촉 경험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익숙하게 이용하는 현실에서 초등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이 계속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컴퓨터 음란물에 접촉하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유형은 58.8%가 음란사진이었고 다음이 음란동영상, 음란채팅, 음란소설, 음란게임의 순이었다. 이는 음란사진을 본 경우가 50.3%(임덕심, 2004), 57.8%(오건호, 2003)였던 선행연구들과 거의 유사한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 음란동영상을 본 경우는 28.1%에 그쳤으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38.4%(김혜란, 2002), 57.4%(지준, 2001), 30.8%(김은경, 2002)로 가장 많이 접한 컴퓨터 음란물의 유형이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컴퓨터 음란물을 찾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촉한 시기는 6학년 때가 41.2%로 가장 많았고 5학년 36.0%, 4학년 14.0%, 1~3학년 6.2%, 초등학교 입학 전 2.6%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임덕심(2004)의 연구에서 컴퓨터 음란물을 처음 접촉한 시기가 5학년이 52.5%, 4학년 22.9%, 3학년 9.6%, 6학년, 1학년, 2학년 순으로 나타난 것과 이진영(2004)의 연구에서 5, 6학년 55.4%, 3, 4학년 41.8%, 1, 2학년 2.8%의 순으로 나타난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이렇듯 인터넷 음란물의 최초 접촉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점점 연소화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철저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컴퓨터 음란물에 접촉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것은 사춘기 연령이 낮아지는 이유도 있겠지만 컴퓨터라는 매체의 특성 상 시간과 공간에 의한 제약이 적고 주위의 눈치를 보는 번거로움이나 노출의 염려가 적어 쉽게 접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접촉 기회에 더욱 많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도신, 2004).

인터넷 음란물을 처음 접촉하게 된 계기는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친구, 선배의 권유', '스팸메일', '성적호기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기성세대가 친구나 음란잡지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정보를 얻었던 것과는 달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인 인터넷 음란물 확산 방지 대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시간대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라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음란물의 1회 접촉 시간은 '보자마자 끈다'라는 응답이 55.3%였으며 '10분 이내'가 21.1%, '10분-1시간'이 12.2%, '1시간 이상'이 0.9%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76.4%가 10분 이내로 음란물에 잠시 접촉하는 비의도적 단순 접촉자로 해석되어 비교적 다행스러운 일이나 30분 이상 정기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소수의 대상자들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빈도에 대해 '몇 달에 한번'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한 달에 1회' 10.5%, '일주일에 1회' 9.6%, '일주일에 2~3회' 7.0%, '일주일에 4~5회' 1.8%, '거의 매일'이 1.8%의 순이었다. 이는 이진영(2004)의 연구에서 '거의 보지 않는다'가 80.2%, '한달에 1~2회' 11.5%, '일주일에 1~2회' 4.6%, '일주일에 3~4회' 2.2%, '거의 매일' 1.5%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한 결과라 하겠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장소는 '자신의 집'이 59.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친구집' 14.9%, 'PC방' 5.3%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경자(2000)과 조금량(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에 컴퓨터 배치 시 초등학생 자녀의 방에 컴퓨터를 두게 되면 부모님의 통제가 어렵고 음란물을 접촉하는데 좀더 용이한 조건이 되므로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과 더불어 가족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시 함께 본 사람에게 대해서는 '우연히 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혼자 봤다'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누구와 함께 보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2.2%였던 임덕심(2004)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이와 같이 혼자서 음란물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비록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컴퓨터를 설치하였어도 부모님이 안 계신 상황을 고려하여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음란물 관리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 음란물 접촉 후 느낌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죄의식, 혐오감, 불안감'이 37.7%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자 중 45.5%가 '많이 놀라고 혐오감이 들었다', 24.5%가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진영(2004)의 연구결과와 다른 양상이기는 하나 37.7%의 대상자가 '불안감, 죄의식, 혐오감'을 갖은 것을 볼 때 초등학생들이 음란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과 관련된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성적호기심에서'가 18.4%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음란물을 접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갑자기 나타난 음란물을 통해 보여지는 성이 매우 왜곡된 것이라면 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혹은 친구들이 하나씩 그냥 재미삼아 빠져들게 된 음란물로 인해 초등학생의 성의식뿐 아니라 그들의 여러 생활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인터넷 음란물에 의해 전달되는 성 정보의 대부분은 상업적인 목적에서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선정적으로 표현하여 성을 단순한 흥미나 오락거리로 유희화시켜 놓아 판단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이를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김도신, 2004).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교육과 더불어 인터넷 음란물의 악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요령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금지에 대해 대상자의 93.0%가 알고 있었으며 음란물 사이트 인지 여부에 있어 30.7%가 음란물 사이트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음란물에 접촉한 대상자 중 77.1%가 1~2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알고 있었다. 최근 한글로 된 포르노사이트가 급증하여 어린 청소년들의 접근이 훨씬 쉬워진 상황이다. 어린이 포털사이트인 jr.naver.com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의 약 13%가 성인사이트나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접하게 된 경로로는 '우연히 서핑하다 알게 됐다'는 응답이 58.6%에 달하여 어린이들이 불건전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오건호, 2003).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컴퓨터를 원래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기자재가 될 수 있지만 불건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경우 막대한 역기능적인 폐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들의 성의식 점수는 본래 도구에서 기대하는 점수가 최저 12점에서 최고 60점인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60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은 46.4점으로 성의식 수준이 그리 낮은 편은 아니었다. 비록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평균을 제시한 연구가 없기에 상호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나 성의식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이수진(2001)의 연구

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성태도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조주현(2003)의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성태도가 다소 부정적이고 성행동도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은 남학생이 26.4%로 여학생의 12.1%에 비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음란물 접촉 경험이 많다는 선행연구들(오건호, 2003; 이기수, 2000; 이진영, 2004; 조주현, 2003)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는 게임과 오락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으며(오건호, 2003; 임덕심, 2004) 남학생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일수록 친구나 선후배와 어울려 음란물을 보기 때문에(조주현, 2003)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음란물 접촉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인터넷에 더 몰입하여 음란물 접촉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많고 인터넷으로 인해 늦잠을 자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음란물의 내용이 사실일거라고 믿는 경향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임경순, 2002)를 고려할 때 남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에 대한 세심한 지도와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성의식은 여학생이 47.2점으로 남학생의 45.6점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의 성지식 수준이 남학생보다 높으며(조주현, 2003), 여학생의 성태도가 남학생보다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엄미영, 2000)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초등학교 시기는 성장발달에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정신적 성숙이 좀더 빠르므로 앞으로 성별,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성적에 따른 성의식은 학업성적이 상위인 경우 47.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위 46.0점, 하위 45.6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성적이 높을수록 성의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건호(2003)의 연구에서는 성적이 상위인 학생들보다 하위인 학생들이 게임방이나 친구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성적이 낮을수록 별다른 목적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적이 하위인 집단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

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경우가 성적이 상위나 중위인 집단에 비해 많았고, 성적이 낮을수록 성과 관련해 '불결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금지에 대한 인식여부에 있어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금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학생들의 성의식이, 인식이 없는 학생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음란물 접촉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음란매체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성실천 횟수가 많으며(이기수, 2000) 성행동이 더욱 적극적이었다(조주현, 200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음란물을 많이 접촉할수록 성태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형성되고 성행동은 적극적이게 되며(김미경, 2000), 인터넷음란물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음란채팅, 키스, 성교경험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양돈규, 조남근, 2004).

음란물을 접촉한 이후 인지적 측면에서는 음란물에 나타난 부적절한 성행위를 모방하여 이성에게 적용하려는 의식이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더욱 많이 하게 된다(김미경, 2000; 임덕심, 2004). 이를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시기에 접하는 음란물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너무나 쉽게 접하는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관리와 함께 인터넷 음란물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예방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와 성의식을 살펴보고 인터넷 음란물 접촉 특성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자료수집 기간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음란물 접촉 경험은 19.2%였고 인터넷 음란물을 최초로 접촉한 시기는 6학년 때가 41.2%였다. 접촉 계기는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가 50.0%였고

접촉빈도는 몇 달에 한번이 69.2%였다. 접촉 장소는 자신의 집에서가 59.6%였으며 인터넷 음란물 접촉한 후의 느낌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가 50.0%였다. 인터넷 음란물을 접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연한 접촉이 35.1%였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금지에 대한 사항을 93.0%가 알고 있었다. 음란물 접촉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남학생이 26.4%로 여학생의 12.1%에 비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9.5, p=.000$).

2. 성의식 점수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60점 사이에 분포하였고 평균 46.4점(SD 6.73)으로 그리 낮지 않았다. 성의식은 여학생이 47.2점으로 남학생의 45.6점에 비해 높았고($t=-2.93, p=.004$), 학업성적 수준에 있어서는 상위군에서 47.9점으로 중위와 하위군에 비해 높았으며($F=4.46, p=.012$), 인터넷 음란물 접촉금지에 대한 인식 유무별로는 인식이 있는 군이 인식이 없는 군에 비해 높았으며($t=2.75, p=.007$)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렇듯 고학년에서 성별, 학업성적 및 인터넷 접촉금지 인식 유무에 따른 성의식의 차이를 볼 때 저학년 때부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보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고민정 (2004). 성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성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90, 수원.
- 국민일보 (2003). 음란사이트 6만4천개, 세계 2위 국가. 7월 11일, 1.
- 김도신 (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 음란물 접촉이 성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3-57, 전주.
- 김미경 (2000).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37, 대전.
- 김은경 (2002). 컴퓨터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 성비행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37, 청주.

- 김혜란 (2002). 컴퓨터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춘천, 53-58.
- 성경자 (2000). 컴퓨터음란물이 청소년의 성 의식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85, 서울.
- 송정아, 윤명선 (1997).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 향상 프로그램 모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71-82.
- 양돈규, 조남근 (2004). 청소년 음란물 접촉경험과 성 비행과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2(1), 325-347.
- 엄미영 (2000). 성교육을 위한 초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24, 대구.
- 오건호 (2003). 인터넷 음란물 매체가 초등학생의 성 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7-42, 수원.
- 이기수 (2000). 음란매체가 초등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37, 청원.
- 이수진 (2001). 초등학생의 성지식 및 성태도와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54, 인천.
- 이진영 (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경험이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0-46, 완주.
- 이춘재 (1996). 학교 성교육의 방향. 교육개발, 통권 제103호, 한국교육개발원, 45-49.
- 임경순 (2002). 초등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실태와 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36-91, 안성.
- 임덕심 (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음란물 접촉실태와 대응방안.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45, 청주.
- 임종인 (2004). 중학생의 인터넷음란물 접촉과 성 의식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청원.
- 조금량 (2002). 청소년의 컴퓨터 음란물 경험이 성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3-57, 서울.
- 조주현 (2003). 초등학생의 음란물 접촉실태와 성의식과의 관계.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74, 구미.
- 중앙일보 (2001). 사이버 음란물 무차별 확산. 3월 26일, 8.
- 지준 (2001). 컴퓨터 음란물 접촉 경험과 청소년의 성태도, 성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38, 서울.
- 최영선 (1998). 음란물과 청소년 성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60-62, 서울.
-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2000).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자녀보호자료집, 1.